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은? [1점]

- ① 겸손한 자세                      ② 협력하는 자세
- ③ 동료를 아끼는 태도              ④ 서로를 격려하는 태도
- 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2. (물음)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선택했을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함께 사는 삶                      ②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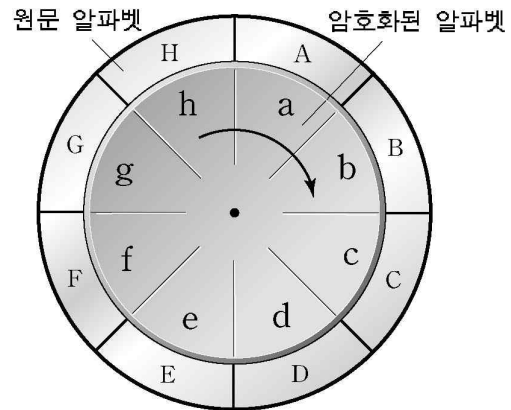
③ 숲 가꾸기                          ④ 대중교통 이용

⑤ 독서하는 사람

3. (물음)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보부상은 신분증을 지니고 다녔다.
- ② 보부상에게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었다.
- ③ 보부상은 전국의 장을 돌아다니며 장사했다.
- ④ 보부상은 일부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했다.
- ⑤ 보상과 부상은 취급하는 물품이나 운반 방법이 달랐다.

4. (물음) 교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 ① fb
- ② fc
- ③ ga
- ④ gh
- ⑤ hd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장면 이전에 최 교수가 발언했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유명 브랜드 선호는 자아 표현의 방식이다.
- ② 유명 브랜드 선호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
- ③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많이 키워야 한다.
- ④ 유명 브랜드 선호의 부정적 측면은 소비자 교육으로 극복된다.
- ⑤ 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6. (물음) 사회자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유머를 통해 부드러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 공정한 토론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 ③ 주의를 환기하며 쟁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에 동참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말실수를 지적하며 보다 분명한 관점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ㄱ~ㅍ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빨리 감기: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ㄴ. 되감기: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ㄷ. 정지: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만들 수도 있다.  
 ㄹ. 일시 정지: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ㅁ. 녹음: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8. ‘신발 선택’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I. 서론  
 1. 건강에 대한 최근의 관심  
 2.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II. 신발 선택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점  
 1. 일반적 기준  
 가. 유행  
 나. 모양새  
 2. 잘못된 신발 선택의 폐해  
 가. 질병과 사고 발생  
 나. 능률 저하  
 다. 교통비 증가

III. 신발 선택의 바람직한 기준과 이점  
 1. 신발 선택의 바람직한 기준  
 가. 건강  
 나. 용도  
 2. 건강과 용도에 따른 신발 선택의 이점  
 가. 건강 증진  
 나. 능률 향상

IV. 결론: 건강과 용도를 고려한 신발 선택 강조

- ① ‘I-1. 건강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I-2. 신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순서를 바꾼다.  
 ② ‘II. 신발 선택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점’을 ‘II. 신발 선택의 합리적 기준’으로 바꾼다.  
 ③ ‘II-2-다. 교통비 증가’를 삭제한다.  
 ④ ‘III-2-다’를 새로 설정하여 ‘혈액 순환 촉진’을 추가한다.  
 ⑤ IV를 ‘결론: 걷기 운동의 생활화’로 바꾼다.

9. ‘이야기 속의 개와 고양이’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석 중에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는다면?

연상 대상	국가	긍정적 연상		부정적 연상	
		비율	대표적인 연상	비율	대표적인 연상
개	한국	76.9%	충직하다, 순종적이다, 쓸모 있다	5.8%	더럽다, 거칠다
	일본	55.7%	순종적이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영리하다, 믿음직스럽다	8.7%	더럽다, 시끄럽다
고양이	한국	13.6%	빠르다, 예민하다	63.8%	차갑다, 교활하다, 믿을 수 없다
	일본	22.4%	부드럽다, 친근하다, 깨끗하다	48.3%	제멋대로다, 게으르다, 변하기 쉽다

\*기타 연상은 제외

<보 기>

ㄱ. 한국인은 개에 대해 긍정적인 연상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이야기에는 개가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군.  
 ㄴ. 일본인에게 개는 긍정적인 연상 대상이고, 고양이는 부정적인 연상 대상이므로, 일본의 이야기에는 개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등장하겠군.  
 ㄷ.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표적인 연상’의 내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양이의 이미지는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를 수 있겠군.  
 ㄹ. 고양이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인 연상 비율이 개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인 연상 비율보다 높으므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양이를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지역 신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글을 투고하고자 한다. <보기>의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제목: 등·하굣길 어린이의 교통안전
- 예상 독자: 지역 주민
- 내용 및 의도
  -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실태
  -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 실천 가능한 예방책 제시

- ①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례를 소개하여 등·하굣길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부각시켜야겠어.
- ②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해야겠어.
- ③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④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해야겠어.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밝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강조해야겠어.

[11~12] 다음은 체험 학습을 다녀온 학생이 쓴 글이다. 11번과 1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산 △△사를 다녀와서

지난 주 토요일에는 △△사의 대웅전과 불상, 석탑을 살펴 보고 ○○산을 오르는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전나무 숲길을 걸어 오르기 시작한 지 40분쯤 지나 당간지주에 이르렀고, 조금 더 올라가 절에 도착했다. ㉠ 돌다리 위에서 종루 너머로 보이는 대웅전은 팔각지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절 입구에는 타원형의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는 대웅전 쪽으로 돌다리가 놓여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때로는 ㉡ 완만하게 때로는 급하게 보이는 지붕의 경사에서 다양한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시간이 되어 공양 들러 가는 스님들을 뒤로 하고 등산로를 따라가니, 얼마 가지 않아 언덕 위의 석탑이 나를 반긴다. [A]

다시 정상을 향해 30분쯤 더 오르자 10m는 훨씬 넘을 듯한 폭포가 나타난다. 기묘한 모양의 암석들과 그 틈에 비스듬히 자란 소나무들 사이로 장쾌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에 가슴 속까지 시원해진다. 폭포를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고 나서 비탈길을 오른다. 오르락내리락 한 시간 남짓 걸어가자, 드디어 정상! ㉣ 산 아래의 풍광을 내리 굽어보려니 옛 시인이 시구로 표현한 말처럼 신선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든다.

11.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뒤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② ㉡은 ‘모가 난 데 없이 부드럽다’는 뜻인 ‘완만하게’로 고쳐야겠어.
  - ③ ㉢에는 글 전체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불상’에 관한 견문과 감상을 추가해야겠어.
  - ④ ㉣은 중의적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절을 떠날 시간이 되어’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어법에 맞고 간결하게 ‘풍광을 굽어보니, 옛 시인의 말처럼 신선이라도 된 듯하다.’로 고쳐야겠어.

12. [A]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의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의인법과 직유법을 사용할 것.
- 대상에 대한 공감을 드러낼 것.

- ① 석탑은 해맑은 동자승의 미소를 띠고 다정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건넨다.
- ② 높이가 어른 키 세 배는 되어 보이는 석탑은 오래된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 ③ 온갖 세파에도 초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탑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 준다.
- ④ 석탑의 상륜부는 잘 깎은 연필처럼 뾰족하고, 기단부는 거인의 어깨처럼 단단해 보인다.
- ⑤ 부드럽고 욕심 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석탑 앞에서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에 잠긴다.

13.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대상 어휘]**  
틈, 겨를, 사이

**[분석 방법]**

1.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2.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틈, 겨를,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를,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를,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를, \*사이}만 나면 싸웠다.

- ① ㄱ을 보면 ‘틈’, ‘겨를’,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ㄱ과 ㄴ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④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⑤ ㄱ~ㄹ을 종합하면 ‘겨를’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14.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 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 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얹은 ㉠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 참위(徐參尉)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쳐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알뜰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야, 쟈—장.” 하고 연습 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잖지 몰라, 늘 갖을 쓰고 앉아서 행길을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 참

위다. 참위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다섯 해를 늘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력저력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 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茶屋町) 같은 중앙 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삼사백 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 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이십여 칸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 참위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 값에 줄릴 형편은 아니다.

㉢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이야…….”

서 참위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가쾌(家儉)\*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 한 칸을 얻어 달래도 네에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중략)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쓸쓸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 「삼국지」 읽던 투로,

“긴—상 도쿄-에 유키이마스카.(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엮은 가져 뭘 하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푹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걸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

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  
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 이태준, 「복덕방」 -

- \* 장전: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
- \* 가래: 부동산 중개인.

15.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  
은? [1점]

<보 기>

- ㄱ.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 ㄴ.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반복된다.
- ㄷ.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다.
- ㄹ.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16. <보기>와 같이 자료 조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드팀전: 베, 비단, 무명 같은 온갖 천을 팔던 가게. 인조 직  
물과 신식 상점의 등장으로 점차 퇴조함.
- ㉡ 참위: 대한제국기(1897~1910)의 장교 계급.
- ㉢ 대정 팔구 년: 1919~20년. 대정(大正)은 일본 국왕의 연호.
- ㉣ 속수국어독본: 총독부가 일본어 보급을 위해 펴낸 책자. 제목  
의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당시 우리말은 '조선어'로 불렸음.
- ㉤ 유성기: 축음기. 전축. 당시 유성기는 신문화와 부(富)의 상징.

- ① ㉠을 보니 '드팀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안 초시'는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  
고 있군.
- ② ㉡를 보니 '서 참위'의 전력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점이  
그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 ③ ㉢를 통해 구체적인 연도와 상황을 알 수 있어. 1920년대에  
도 서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 흥미롭군.
- ④ ㉣의 맥락을 몰랐다면 '국어'가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야.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고 있는 '박희완 영감'  
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어.
- ⑤ ㉤를 통해 '딸'은 가난한 '안 초시'와는 달리 부자임을 알 수  
있어. 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 초시'의 희생  
덕분이었겠군.

17. <보기>는 1930년대 후반 '금광 투기 열풍'의 세태를 묘사한 글  
이다. 이런 세태에 대한 안 초시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금' '금' '금' 금값의 폭등이 잔칫집같이 조선을 발끈 뒤  
집어 놓았다. 그것은 확실히 획기적인 사실이다. 물론 금광  
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  
도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하다못해  
몇 천 원짜리의 부자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 것이 더  
잘 눈에 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소위 '경기'라는 것도 무척  
좋아졌다.

지금 한 괴물이 조선 천지를 횡행한다. '금'이라는 놈이다.

- ① 나도 금광으로 큰돈 한번 벌어야겠군.
- ② 복덕방으로 벌어들인 돈 금광 부자에 비할까.
- ③ 내 손 안의 백통화 한 푼이 금광 열 개보다 낫지.
- ④ 나도 금광 부자가 될 수 있나 없나 화투패부터 떼 보자.
- ⑤ 금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구해 볼 길이 없  
을까.

18.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① ㉠: 죽음을 앞둔 안 초시의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자신의 못생긴 엄지손가락에 대해 자탄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④ ㉣: 일본어 억양과 어울리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 ⑤ ㉤: 책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9. ㉠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 ② 산 입에 거미줄 치랴.
- ③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④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늦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겉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20.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중심 화제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의의를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21.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유어를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창안했다.
- ②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 ③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구조를 밝히려 했다.
- ④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 ⑤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려 했다.

22. 위 글에 근거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가르친 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 ③ 주시경이 국어 보급에 앞장선 까닭은 국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구나.
- ④ 주시경의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 과학적 국어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구나.
- ⑤ 주시경이 선구적인 인물인 까닭은 그가 독자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겠구나.

23.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집이’, ‘집을’처럼 적는다.
- ② 불규칙 용언 ‘돕다’의 경우 ‘도와’, ‘도우니’처럼 적는다.
- ③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경우 ‘소나무’, ‘바느질’처럼 적는다.
- ④ 접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짚막하다’, ‘널따랗다’처럼 적는다.
- ⑤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마개’, ‘마감’처럼 적는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슬란드는 지진과 화산 분출 같은 지각 변동이 매우 활발한 화산섬이다. 동서로 약 540 km, 남북으로 약 350 k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일부 지역이 지난 2만 년 동안 쌓인 용암으로 뒤덮여 있다. 활발한 지각 변동 덕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화산의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온천수로 작물을 재배하며, 화산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등 지질학적 특성을 이용하며 살아오고 있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지질학적인 위치는 매우 특수하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대서양의 해저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극해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남쪽 끝까지 긴 산맥의 형태로 뻗어 있다.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판의 경계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희귀한 지역이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한 판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다른 판의 경계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지질학적 현상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갈라져 있는 틈이 매년 약 15 cm 씩 벌어지고 있다. 이 벌어지는 틈으로 해양 지각의 하부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해양 지각은 멀어져 가는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다. 그 결과로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은 아이슬란드가 위치해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판의 절대 속도를 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아메리카 판에 대한 유라시아 판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를 추정하여 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낸 판의 이동 속도는 이동하는 판 위에서 이동하는 다른 판의 속도를 잰 것이다. 이는 한 판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판의 속도, 즉 상대 속도이다. 과학자들은 상대 속도를 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판의 절대 속도, 즉 지구의 기준점에 대해서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도 알고자 했다. 판의 절대 속도를 ㉠ 구하기 위해서는 판의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맨틀 깊숙이 위치한 마그마의 근원지인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였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100여 개의 열점을 찾아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슬란드에 있다.

24. 위 글로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판이 확장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 ㄴ. 판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ㄷ. 판의 절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 ㄹ. 판의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슬란드는 지열 산업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 ②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④ 아이슬란드의 화산 분출은 판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의 해저 산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2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 ③ 아이슬란드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 ④ 확장되지 않는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현상이 일어날까?
- ⑤ 과학자들은 열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2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귀성 차표가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해야겠다.
- ② 농사철에는 일꾼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③ 그는 한 시간 내에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④ 철수는 영수의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 ⑤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수록 답을 구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28~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B]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 낮이 밝을수록 칙칙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남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갓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럴: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라: 약았더라.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9.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야!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3.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 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은 포착한다.

34.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져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먼 피’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진술은 다양한 물질의 감광성에 대한 길고도 지루한 실험의 토대 위에서 출현하였다. 상(像)을 정착시키는 기술의 선구자인 니에프스와외의 공동 연구 이후 다게르는 1837년에 동판 위에 감광성 물질인 요오드화은을 정착시키고 암상자 속에서 빛에 노출시킨 다음, 수은 증기를 쬐어 세부 묘사가 대단히 정밀한 상을 얻어 내었다. 한편 영국인 톨벗은 1835년에 최초의 ‘감광 소묘’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염화은으로 감광성을 띠게 한 종이 위에 물건이나 식물을 놓고 산출한 음화(陰畫)였다. 그 직후 그는 작은 암상자를 이용하여 사물의 영상을 종이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거친 종이 면에

정착된 톨벳의 영상은 매끈한 다게르 동판의 선명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나) 1839년에 두 기술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게르는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기술을 프랑스 정부에 인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종신 연금을 약속 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게레오타입의 제작 비결을 공개했고 이로써 저작권이 없어진 이 기법은, 다게르가 특허를 낸 영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나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게레오타입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다) 한편 톨벳의 기법은 휴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톨벳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1840년에 암상자에서 얻은 음화를 현상하여 여러 장의 양화(陽畵)를 인화하는 음화-양화 기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게레오타입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단 한 장의 사진만을 얻을 수 있었으나 톨벳의 새 기술은 여러 장의 똑같은 종이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진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톨벳은 자신의 새로운 기법을 ‘칼로타입’이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톨벳이 칼로타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술에 대해 많은 사용료를 ㉠ 요구하는 바람에 이 기술의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다.

(라) 사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 준 분야는 초상 사진이었다. 정밀한 세부 묘사를 장점으로 하는 다게레오타입은 초상 사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여러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서 영구적인 초상을 금속판에 남기는 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허에 묶여 있었던 칼로타입이 그나마 퍼질 수 있었던 곳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화가와 판화가들은 칼로타입이 흑백의 대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화와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마) 사람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설득으로 톨벳은 1852년에 초상 사진 영역을 제외하고 칼로타입의 특허권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이 기법을 유행시키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1850년대 초에 콜로디온을 유리에 발라 선명한 음화를 얻고 그것에서 원하는 대로 양화를 얻을 수 있는 콜로디온 기법이 특허권 없이 공개되면서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은 모두 퇴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35. 위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초기 사진술의 원리
- ② 초기 사진술의 장점과 단점
- ③ 초기 사진술의 보급과 쇠퇴
- ④ 발명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
- ⑤ 특허가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36. 위 글에 따라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을 비교하여 만든 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① 용도	인물 사진	풍경·정물 사진
② 사진관의 재질	동판	종이
③ 주요 보급 지역	프랑스, 미국	프랑스
④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⑤ 복제 가능성	복제 불가능	다량 복제 가능

37. (가)~(마)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다게르와 톨벳은 다른 감광 물질을 사용했었군.
- ② (나): 프랑스 정부는 기술의 공공화에 기여했군.
-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④ (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초상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았겠어.
- ⑤ (마): 콜로디온 기법은 다게레오타입과 칼로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졌겠군.

38. ㉠의 ‘-는 바람에’와 의미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함께 늙어 가는 마당에 가릴 것이 뭐가 있소?
- ②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교실에선 공부를 못 하겠다.
- ③ 이 일이 들통 나는 날에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④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으니 참는 김에 더 참아 봅시다.
- ⑤ 경찰에서 풀려나는 길로 나는 그 애를 따라 서울로 갔어.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 격차가 있듯이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도입 초기에는 ㉡ 매체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 격차가 곧 사라질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물론 정보 격차에 관한 비판적 관점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매체 접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정보 격차는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접근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접근의 격차는 감소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증가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격차가 해소되면서

또 다른 정보화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은 크게 이용의 자주성과 사용 여건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이용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 디지털 시스템의 운용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겪는 열등감도 문제이다. 나아가 디지털 매체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 문제 해결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용의 자주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이를 풍부하게 활용하기가 힘들다.

(라) 사용 여건의 공평성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이용 기회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매체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더라도 주변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 정보 격차는 지속된다.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 활용법을 열심히 습득하였지만 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용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방법을 알고 활용을 원할지라도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보 격차는 발생한다.

(마)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정보 격차의 새로운 측면들은 소득, 교육, 연령, 성별, 지역,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결합된다. 이것은 보다 세부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보 활용의 질적 차이를 낳아서, ㉣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개인이 처한 상황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보 격차의 존재와 유형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적일 수 있다.

3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논의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논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새로운 관점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④ (라): 새로운 관점과 기존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⑤ (마): 논의 대상의 향후 전개 양상을 전망하고 있다.

40. 위 글로 보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단위의 인터넷 동호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②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 ③ 노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따로 묶어 노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든다.
- ④ 디지털 매체의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⑤ 정보화 낙후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진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41. 문맥을 볼 때, 밑줄 친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② ㉡: 컴퓨터 사용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 ③ ㉢: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
- ④ ㉣: 컴퓨터 자격증이 여럿 있지만 직장에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 ⑤ ㉣: 인터넷 검색법을 배우고 나서 유용한 자료를 더 빨리 수집하게 되었다.

42. ㉠의 관점을 수용해서 ‘공연 문화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 ② 공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공연 문화 학교를 운영하자.
- ③ 우수 공연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 ④ 다양한 관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연 작품을 기획하자.
- ⑤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가 저렴한 공연장을 많이 만들자.

43. ㉡는 <보기 1>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2>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보기 1>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떨어지다	올라가다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 높다 ]

<보기 2>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ㄱ. 풀다	묶다	(감정을) 풀다 ↔ (감정을) [ ]
ㄴ. 주다	받다	(겁을) 주다 ↔ (겁을) [ ]
ㄷ. 열다	닫다	(입을) 열다 ↔ (입을) [ ]
ㄹ. 벨다	삼키다	(말을) 벨다 ↔ (말을)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날 사향이 틈을 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남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 후에 부인이 잔치에 가려고 봉차를 찾으러 간 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세간을 내어 살펴보니 장도 또한 없거늘 모든 시녀를 죄 주었다. ㉠

이때 사향이 들어오며 말하기를,  
“무슨 일로 이렇게 요란하십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옥장도와 금봉차가 없으니 어찌 찾지 아니하리오?”

사향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고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세간을 뒤지더니 무엇인가 치마 앞에 감추어 가지고 자기 침방으로 갔으니 수상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숙향의 병옥 같은 마음에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사향이 말하기를,  
“숙향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근간 혼인 의논을 들은 후로는 당신의 세간을 장만하노라 그러하온지 가장 부정함이 많습니다. 어쨌든 숙향의 세간을 뒤져 보십시오.” ㉡

부인이 또한 의심하여 숙향을 불러 말하기를,  
“봉차와 장도가 혹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하고 그릇을 내어 친히 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 지라. 부인이 대로하여 말하기를,

“네 아니 가져왔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 있느냐?”

하고 승상께 들어가 말하기를,

“숙향을 친딸같이 길렀으나 이제 장도와 봉차를 가져다 제 함 속에 넣고 종시 몰라라 하다가 제게 들켰사오니, 봉차는 계집의 노리개니 이상하지 않으나 장도는 계집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그 일이 가장 수상합니다. 어찌 처치하면 마땅하겠습니까?” ㉢

사향이 곁에 있다가 고하기를,  
“요사이 숙향의 거동을 보오니 혹 글자도 지으며, 외인이 자주 출입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승상이 대경하여 말하기를,  
“제 나이가 찼음에 필연 외인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을 것이니 빨리 쫓아내십시오.”

(중략)

숙향이 천지 아득하여 침소에 들어가 손가락을 깨물어 벽 위에 하직하는 글을 쓰고 눈물을 뿌리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니, 사향이 발을 구르며 숙향을 이끌어 문밖으로 내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며 말하기를,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라. 만일 승상이 아시면 큰일 나리라.”

하거늘, 숙향이 멀리 가며 승상 집을 돌아보고 울며 가더라. ㉣

한 곳에 다다라 문득 보니 큰 강이 있으니 이는 표진강이었다. ㉤ 어찌할 바를 몰라 강변을 헤매다가 날은 저물고 행인은 드문지라 사면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는지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다가 손에 김수건을 쥐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

행인이 놀라 급히 구하려 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지라 모두 탄식하며 그 곡절을 알고자 하더라.

이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 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숙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들은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려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장\*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 금봉차: 금으로 만든 봉황 모양의 비녀.
- \* 옥장도: 옥으로 만든 장식용 칼.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 소아: 달나라에 사는 선녀. 숙향의 전생의 이름.
- \* 적장: 죄를 지어 인간계로 쫓겨남.
- \* 태을: 숙향의 장래 배우자인 이선의 전생의 이름.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부정적 인물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5.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인물	역할	사건의 내용
사향	( ㄱ )	도둑질의 누명을 씌움
		( ㄴ )의 누명을 씌움
승상	심판자	( ㄷ )
숙향	피해자	( ㄹ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공모자 | 부정한 행실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② 공모자 | 내통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 ③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입증함 |
| ④ 음해자 | 밀고     | 체벌 허락 | 무죄를 탄원함 |
| ⑤ 음해자 | 부정한 행실 | 추방 지시 | 집에서 쫓겨남 |

4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그런데 고난의 해결은 초현실적이다. 당시 독자들이 숙향과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던 당시 독자들은 숙향의 패배와 죽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숙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한 까닭이다. 요컨대,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悲感)을, 숙향이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는 쾌감을 맛보게 된다. ‘숙향전’에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향의 적장은 당시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한 것이군.
- ② 용녀의 보은은 당시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이치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군.
- ③ 숙향이 여러 고난을 겪는 것은 당시 독자의 비감을 증대시키려는 것이군.
- ④ 옥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독자들이 타고난 운명을 비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숙향과 태율이 만나는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안정된 현실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군.

47. ㉠에 나타난 숙향의 처지를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              |              |
|--------------|--------------|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 ③ 혈혈단신(孑子單身) | ④ 사고무친(四顧無親) |
| ⑤ 진퇴유곡(進退維谷) |              |

48. <보기>의 ‘전기수’처럼 위 글을 읽다가 멈추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전기수(傳奇叟)는 ‘숙향전’, ‘소대성전’ 등과 같은 국문소설을 장소를 바꿔가며 사람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책을 읽어 가다가 사람들이 꼭 더 듣고 싶어 할 만한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邀錢法)이다. 전기수의 이런 수법은, 한 장회를 끝낼 때 새로운 사건의 첫 부분만 짧게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고소설의 장회 나누기 방법과 같은 원리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 작품으로 특징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 어떤 그룹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의 전통적 시각이나,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주장, 또 예술은 형식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한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정말 예술의 본질인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미학자 와이츠는 예술이라는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에게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다. 열린 개념이란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 있는 개념을 말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와이츠는 표현이니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라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한다.

4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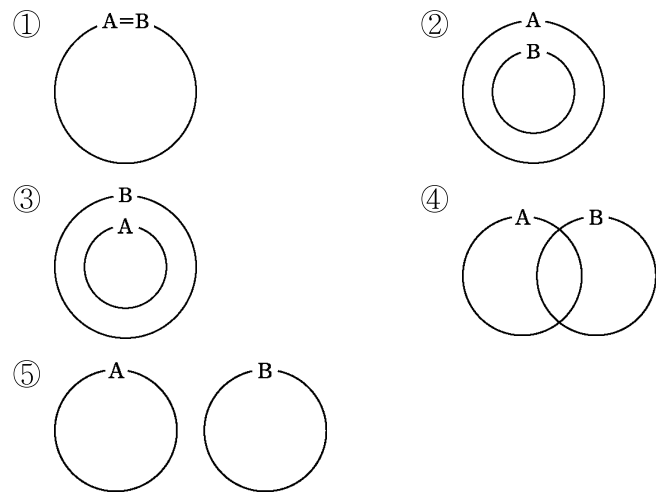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50. 위 글을 읽고 와이츠 예술론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 토론했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은? [3점]

- ①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 ② 와이츠는 예술의 본질은 없다고 본 거야.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 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
- ③ 와이츠는 무엇이 예술인가와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 같아. 열린 개념이라고 해서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니야.
- ④ 현대 예술은 독창성을 중시하고 예술의 한계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예술의 영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어. 와이츠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잘 부합하는 예술론이야.
- ⑤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지. 미래의 예술이 그런 것들도 포괄하게 될 때, 와이츠 이론은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어.

51.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52. ㉠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 중,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는?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마니 짜는 둔한 기계 소리에 막이 열리면—

명서 (편지 쓰느라고 다른 정신 없이)

사이.

명서의 처 (소리만) 후어! 후어! 저놈의 닭들 봐라! 예구 속상해!

명서의 처, 좌편 입구에서 등장. 호미와 바구니를 든 것을 보면 그가 들에서 일하고 오는 것이 분명하다. 나이에 비하면 아직 기력이 좋아서 능히 자기의 노동을 분담하는 것이다.

명서의 처 (들어오면서) 예구 세상이 약으니까 닭들까지 약아서 사람 소리를 겁을 내야지. (금녀에게) 애야 집에 있으면서 닭이나 좀 쫓으려무나.

금녀 집에 있으면 누가 노우 어머니도 참. 밭이나 다 매고 왔소?

명서의 처 (몸을 털면서) 아랫밭은 다 매고 왔다……. (남편을 보고) ㉠당신은 여태 들고 앉았수. 오늘도 끝을 못 내구. 아이구 편지 한 장에 며칠이 걸린단 말이요.

명서                   ㉠.....  
 명서의 처           그렇게 천정만 쳐다보고 눈만 까무락거리면 무엇이 나오우? 얼른 쓰세요. 일본 가는 삼조가 금방 올 텐데-. 금녀야 내 없는 동안에 삼조가 왔다 가지 않았니?  
 금녀                   아뇨 아직 안 왔어요.  
 명서의 처           아까 들에서 누가 그러는데 벌써 보통이를 들고 나가드란다..... (부에게) 금년 안에는 꼭 나오라죠 그리 썼어요? 그리고 나올 때에는 돈 좀 가지고 나오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좀 허리를 펴죠.....  
 명서                   왜 이 수선이야 정신 시끄럽게!  
 명서의 처           얼른 쓰세요. 삼조가 곧 온답니다.  
 명서                   편지란 것은 그리 쉽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야.  
 명서의 처           대관절 이 편지 들고 앉은 지가 오늘까지 며칠인 줄 아우? 오늘이 사흘째예요. 사흘.  
 금녀                   ㉡ 어머니 누가 오나 봐! 개가 짖어요.

삼조, 빙긋빙긋 기쁜 듯이 등장. 시골 청년. 보통이를 들고 색 난 양복에 작업화를 신었다.

삼조                   안녕하시우.  
 명서의 처           ㉢ 아이구 훌륭하다. 양복에다 모자를 쓰고 그렇게 차리고 오니까 개도 몰라보고 짖는 거지.  
 삼조                   저는 일본 갑니다.  
 명서의 처           아이, 이것 보세요. 내 말이 그런가! 시방 떠나니?  
 삼조                   그럼요 방금 떠나는 길이에요. 명수에게 부칠 게 있다고요?  
 명서의 처           동장에게나 맡겼으면 벌써 되었을 걸, 돼지 꼬리 같은 글씨를 부비대다가 그만 좋은 인편을 놓쳐 버리지.  
 삼조                   아직 다 안 쓰셨구먼요.  
 명서                   ㉣ 거진 다 되어 가는데-.  
 명서의 처           그 '거진'이 또 며칠을 끌 '거진'이에요.  
 금녀                   그럼 입으로나 전하시죠. 어머니.  
 명서의 처           그러는 수밖에 없다. 삼조야, 좀 올라오렴.  
 삼조                   (초조하게) ㉤ 바빠요.  
 명서의 처           바빠도 이리 좀 걸터앉거나 해라. 우리집 형편을 네가 좀 소상히 듣고 가서 잘 전해 주어야겠다..... 사람이란 별것이 아니구나. 너도 그렇게 꾸미니까 훌륭한 면주사 나오리 같구먼은.  
 삼조                   면주사? 그야 뭘 일본 가서 곤니찌아 곤방아\*나 좀 배우고 구두 신을 줄이나 알면 그까짓 면주사 째미야 부러울 것 없겠지요.

㉢ 일동 힘없는 웃음.  
 - 유치진, 「토막」 -

\* 곤니찌아 곤방아: 일본어 인사말.

53. 위 글의 내용을 통해 판단한 것 중, 분명하게 참인 것은?
- ①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명서의 처'이다.
  - ② '금녀'는 처음부터 '명서'가 편지를 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 ③ '금녀'는 '명수'의 귀국을 바라는 심정을 편지에 담고 싶어 했다.
  - ④ '삼조'는 '명서'의 집에 오기 전에 '명수'에게 전할 것이 있음을 알았다.
  - ⑤ '명서'는 '삼조'가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5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명서의 처'는 원망하는 투로 ㉠을 말하세요.
  - ② ㉡에서 '명서'는 '명서의 처'를 보지 말고 시선을 위로 향하세요.
  - ③ '명서의 처'는 '삼조'를 바라보면서 ㉢을 말하세요.
  - ④ '명서'는 ㉣을 말하면서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세요.
  - ⑤ '삼조'는 ㉤을 말하면서 마루에 걸터앉으세요.
5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서의 처'는 ㉡를 듣고 경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 ② ㉡는 음향 담당자가 효과음을 넣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를 통해 '금녀'는 '명서의 처'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관객은 ㉡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삼조' 역을 맡은 배우는 ㉡를 근거로 등장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56. <보기>가 ㉢의 상황에 있는 '금녀'의 내면 심리라고 할 때, 위 글로 보아 <보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 <보 기>

삼조 씨가 가면 오빠 소식을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된 걸까 오빠는? 혹 우리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찌지? 다 잘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 ① '삼조'는 양복을 입고 있다.
  - ② '삼조'는 일본에 가려고 한다.
  - ③ '삼조'와 '명수'는 아는 사이이다.
  - ④ '금녀'는 '명수'의 소식을 모르고 있다.
  - ⑤ '명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찬 ㉢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7.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1점]

- ① 의병의 참여 동기                      ② 의병장의 이념적 기반
- ③ 의병장과 조정의 관계                ④ 의병의 전투 활동 실태
- ⑤ 의병 활동의 공간적 범위

58.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라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9. [A]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병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심경을 추론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군에 들어가느니 의병이 낫고말고.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③ 사랑하는 처자식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⑤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으니 싸울 힘이 나는군.

60. ㉢의 접미사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1점]

- ① 사냥-꾼                      ② 동갑-내기                      ③ 대장-장이
- ④ 벼슬-아치                      ⑤ 잠-꾸러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